

2014 6.08 성령 강림 대축일

제 1 독서 : 사도행전 2,1-1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제 2 독서 : 코린토 1 12,3 -7.12-13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복 음 : 요 한 20,19-23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 입니다. 영어로는 PENTECOST 인데, 이는 그리스어로 오십일째의 절기 (오순절)라는 의미 입니다. 우리 천주교 언어를 살펴보면 그리스어에서 유래된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천주교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보다 먼저이지요. 오늘 제 1 독서

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다 함께 모여 있었을때에 이상한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혀모양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 불덩어리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갈릴래아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이국인들이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릴레아 말을 할줄 모르는데도 그것을 잘 알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느님의 진리는 모든 언어로 통역되어 나가면 누구나가 알아 들을 수 있는 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을 Common Sense 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진리는 그 커먼 센스보다 더 강력한 진리입니다. 즉 하느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풍습과 언어를 초월해서 이해 할 수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서 인간이 인간 답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한국이나 미국을 막론하고 언론을 비롯하여 모두가 자기 느낌과 기분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느낌과, 자기 기분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은 무엇이나 하면 우리 **교회의 양심**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 나갈때에는 늘 성령 채신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성인들이 보내 집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이 교회의 잘못 된 것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 **교회는 2000 년동안 계속 양심성찰을 해 오면서 성령을 모시고 하나가 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양심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도 일치 할수가 있습니다. 그 양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양심은 바로 나의 느낌과 기분을 조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기분이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을 때에 바로 양심이 나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느낌과 기분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법으로서 기본 양심을 우리 각자에게 다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영향에 의해서 그 양심이 다 허물어 졌습니다.** 지워졌습니다. 이런말이 있지요. 맨 처음의 양심의 모양은 사각형이었다. 사각형인 이유는 그것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내 마음을 건드려서 아픈 것을 느끼게 하여 우리가 제 자리로,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너무 잘못하는 것을 반복 하다 보니까 그 모서리가 그만 동그랗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잘못을 하여도 잘못된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자연적인 양심뿐 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예언자들의 가르침** 으로서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은 삼각형입니다. 천주교 신앙인의 양심은 삼각형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할 때에 항상 우리를 콕콕 찔러주면서 벌떡 벌떡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였으니까 고쳐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때로는 세상의 삶을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양심뿐 만이 아니라 하느님께 그분의 자녀로서 받은 신앙마저도 지금은 그 모서리가 동그래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성사를 받으셨습니다. 또 견진성사도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건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즉 건진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칠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맙니다.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집안에 보시면 수많은 것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지요. 사실 때는 다 필요해서 사신 것이지만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먼지만 쌓이게 되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을 때, 건진을 받으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으신 선물들이 지금은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왜 있는지도 모릅니다. 건진성사의 첫번째 은혜로 우리는 **지혜**를 받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1+1=2 라는 것과는 틀린 지혜를 받습니다. 즉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흡족해하는 마음을 누리는 지혜를 받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제가 좋은 강론을, 성령에 감화되어 좋은 강론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게 됩니다. “왜,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남을 자꾸 도와 주려 하는 거야? 나도 살기 바쁜데, 왜 그들이 가여워지는거야?” 네번째는 **굳건함**이 생깁니다. 즉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해심과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함을 주십니다. 우리 일상 생활을 돌아봅시다. 예를 들어 세금보고하는 것, 조금이라도 아낀다는 생각이지만 때로는 참 슬픈 결과를 가져오곤 하지요. 다섯번째로 우리가 받는 선물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게되는 지식, 즉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성령을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빨리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는 **자비**입니다. 혹시 믿으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형제 자매님들의 어려움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가슴을 치며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합니다. 일곱번째로 주시는 것, 사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나머지 여섯의 은혜를 구할 것 입니다. 즉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 요즘 세상은 두려운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위 아래가 없고,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이 몇몇한 세상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때에 제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까 보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는 당신의 상처를 보여 주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후우!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즉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해성사를 설정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다음에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바로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평화를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요즘 일부 교회안에서도 잘못된 점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분께서 모든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즐겁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가 청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머리에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내 죄를 알고 그것을 멀리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어, 아무것도 안 했어.” 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오직 나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안에 꽂차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네죄는 네가 알렸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형제 자매님들의 죄는 누구보다도 형제 자매님들이 하느님과 함께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할 때에는 구원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령강림 대축일에 마음에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싶으시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거저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짝사랑일 따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형제자매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언자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는 “회개하여라!” 를 선포합니다. 회개 하시면 하느님의 사랑이 뜨겁게! 뜨겁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1-11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1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2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3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4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5 그대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6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7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 8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9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10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11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104(103),1 ㄱ과 24 ㄱ.29 ㄴ-30.31 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2,3 -7.12-13

형제 여러분, 3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4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5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6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7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12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13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23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